



2024-10-08

## C-셀온 눈치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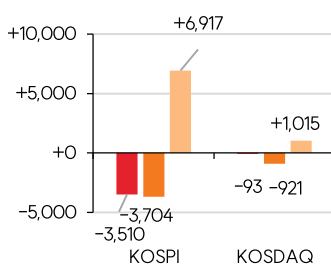
KOSPI 일종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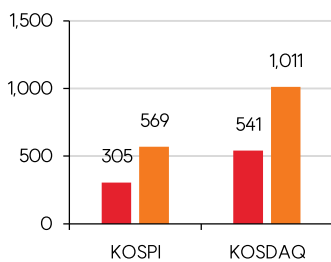
KOSDAQ 일종차트



수급동향(기관/외국인/개인, 억)



상승/하락 종목 수



오늘 두가지 대형 이벤트들이었던 1) 삼성전자 잠정실적과 2) 중국증시 재개장은 아주 이상적인 흐름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게 전개됨. 중국 쪽은 셀온이 나와 버렸고, 삼성전자 잠정실적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다소 하회하는 수준이 었음. 어제 미국 증시에서 흐름이 그리 좋지 않았고 중화권에서의 높은 변동성, 비우호적 외국인 수급에도 2차전지와 바이오 등에서 하락분을 어느 정도 상쇄해 주면서 지수 낙폭은 제한적으로 발생

외국인 수급 비우호적으로 지속.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에 대해 현선물 동반 매도 세 보였고 현선물 합계 -7500억원가량 순매도. 현물 순매도 대금이 -3700억 원을 조금 넘었는데 전기전자에 대한 순매도 금액이 -5000원에 육박해 집중 매도세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 어제는 삼성전자 Short - SK하이닉스 Long으로 대응했다면 오늘은 외국인 순매도 1~3위 종목이 삼성전자 / SK하이닉스 / 삼성전자우로 반도체에 집중 매도 폭격 진행. 반면 테슬라 납품 재료가 나온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는 순매수 규모 3위(기관의 경우에는 순매수 1위 종목이 LG에너지솔루션)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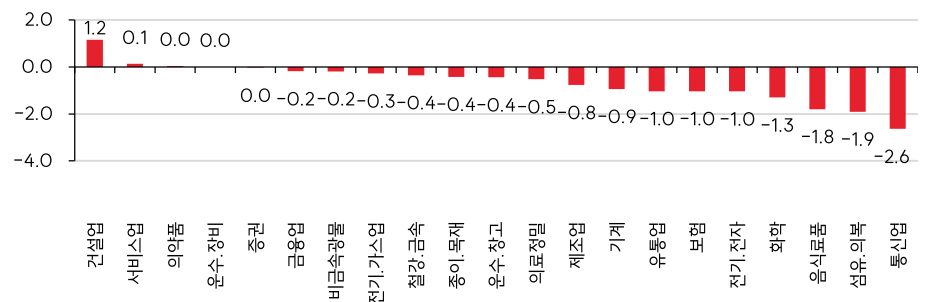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충족하지 못함. 매출은 시장 예상치를 조금 하회하는 수준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9.1조원을 기록하며 컨센서스였던 10 억원 초반대를 충족하지는 못함. 한 달 사이에 컨센서스가 14조원 언저리에서 크게 하향 조정되어 눈높이는 충분히 낮아져 있었지만 다소 아쉬운 결과.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더 큰 쇼크를 예상하는 목소리들도 있었고 기대치 자체가 크지 않았 기에 주가 응징은 엄청 세지는 않았음. 삼성전자는 -1.15% 하락해 종가 60,300원에서 거래를 마쳐 6만전자는 간신히 지켜냄

중국 본토증시가 다시 열리면서 본토 Long, 홍콩 Short의 스위칭 자체는 어느 정도는 시장이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그 폭이 상당히 컸음. 지수 상한가 출발했던 본토 증시도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고 하락을 받아들였던 홍콩 증시에는 조정이 굉장히 강하게 발생(홍콩 항셱 -8% 내외, HSCETI -9% 내외, 항셱테크 -11%가량 하락). 아무래도 어제까지의 주가는 분명 기대감으로 만들어진 것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텐데 오늘 오전에 있었던 발전개혁위원회 기자회견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재료를 제공하는 데에 실패하면서 실망감 매 물이 무더기로 출회. 그동안 많이 올랐던 만큼 조정도 가파르게 진행되는 것을 확 인. 당분간 위아래로 변동성 큰 국면 이어지면서 매매 실력에 따라 수익률도 극명 하게 갈리게 될 확률 높지만 전반적인 정책의 방향성, 특히 증시를 살리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노골적인 스탠스가 실물 경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길게 보면 유리한 싸움이 될 가능성

## KOSPI 업종별 수익률 (단위: %)



## KOSPI 200 및 KOSDAQ 150 수익률 상/하위 5종목 (단위: %)

